

# 토양과 비료

## - 토양의 건전성 -

자료 : 한국토양비료학회의 토양과 비료중에서  
농업과학기술원 윤정희 님 글 인용

### o 머릿말

산업화,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의 오염은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반사적으로 인류는 깨끗한 환경과 음식을 찾는 데에 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원인을 제공한자가 자기인줄도 모르고 그 원인을 찾아 해매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큰 차원에서 쉽게 찾아보면 인류의 근시안적 행복을 위해 지하에 잠겨 있던 모든 자원을 지상으로 끌어내다가 당장 좋은 것은 쓰고 나쁜 것은 아무렇게나 버리기 때문이다.

모두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이다. 나를 위해선 다음의 자손도 생각하지 않는다. 말로는 자식을 목숨같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기야 자식도 버리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마는.....

여러 가지 환경 중 토양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시대마다 주안점이 다르긴 하였으나 수 천 년간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그 당시의 토양의 질 내지 건전성이라고 생각되는 단위 토지면적 당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에 여러 가지 자재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었다.

현대과학을 기본으로 한 농업의 업적은 크나 생산성만 강조하고 자연자원의 악화에 대한 화학물질 및 에너지 집약농업의 총비용이 감안되지 않았다.

~~~~~









인류는 농업의 주목적인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많은 자재를 개발하고 농사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생태계와 자연을 보전하는 최선임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농업생산을 위해 농자재를 투입하여 환경의 질을 저하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토양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정말로 보배로운 자원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토양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유지 보전에 진력해야 될 것이다.

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토양이 되도록 잘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끝)

♣ 일단 성공하는 날,

그 성공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다면

성공의 달성도 필경은 그 인간을 권력의 재물로 만드는 데 지나지 않게 될다.

< 버트런드 러셀 >